



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(R&D) 자금 저리 융자사업 개시

-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·중견기업 대상 900억 원 규모, 1%대 저금리 지원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격차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(R&D)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」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1.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.

동 사업은 올해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며, 기업당 최대 50억 원의 연구개발(R&D) 자금을 1.84% 금리(`24.1분기 기준)로 지원받을 수 있다. 상환방식은 2년 거치, 3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.

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, 1차 적합성 평가, 2차 대출심사의 단계를 거쳐 적격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실제 융자는 산업부에서 동 사업의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전국 13개 시중은행*을 통해 이뤄지며, 담보 여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상품을 통해 10~15%p 상향된 보증한도로 보증서를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하다.

* 신한은행, 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하나은행, NH농협은행, KDB산업은행, 제주은행, BNK경남은행, BNK부산은행, DGB대구은행, 기업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

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, 동 사업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.

동 사업은 그간 출연 일변도의 정부 연구개발(R&D) 지원 방식과 달리 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(R&D)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으며, 산업부는 올해 90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3,900억 원(잠정)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산업기술융합정책관	책임자	과 장	서성태 (044-203-4540)
	산업기술시장혁신과	담당자	주무관	이대호 (044-203-4545)